



2006. 10. 27

브라질의 식품 시장 동향

내용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02-2194-7453, shinilgi@khidi.or.kr)

□ 브라질의 식품 시장개요

- 브라질 농축산 관련 산업은 브라질 국내총생산의 34%를 차지하며 경제인구의 37%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동시에 브라질 수출의 42%에 해당하는 거대한 산업임
- 브라질은 설탕, 커피, 콩, 오렌지 주스, 쇠고기 및 계육(鷄肉)의 세계적인 수출국으로 농수산부는 2004년 농축산업 분야에서 40만 개의 직접 고용을 포함한, 총 130만 건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음
- 농축산업 분야의 발전은 자연적으로 식료품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수출물 중 약 55% 가량이 국내에서 가공되며 이 식품가공산업에 98만 명 이상이 직접 고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3년 브라질 식료품 분야는 68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브라질 국내총생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 브라질 식료품 산업협회(ABIA)에 따르면 식료품 분야에서 90%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 중에서는 대기업이 43%, 중간규모 기업이 36%,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2003년 브라질 식료품산업계는 13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고 2004년에는 수출금액 면에서 약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음
- 브라질 식료품업계는 보통 가계 수입증가, 국민의 식료품소비량, 해외수출 증가 이 세 가지 요소에 좌우되는데, 2005년 브라질 식료품 산업협회는 업계 성장률을 5-5.5%까지 전망하고 있음 이 성장률은 현실적으로 볼 때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요인들은 예상보다 낮은 국내 경제성장률, 고유가 지속,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인한 쇠고기 및 닭고기 수출 감소 등임

브라질 식료품 시장 연도별 매출액

(단위: 억불)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식품시장	375	420	491	595	684
음료시장	60	66	75	90	100

- 2015년까지 식료품 소비는 39% 성장이 예상되면서 다른 부분에 비해 증가폭

- 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수입의 많은 부분을 식비로 지출하고 있어 향후 동 부문에 추가적인 지출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소비에서 주거비와 식비의 비중이 큰 후진국형 시장 형태로 대체적으로 생활, 보건, 교육 분야에 대한 소비가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음, 공공시설 부족으로 대다수의 저소득층은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음
 -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 웰빙상품에 대한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브라질국민들의 유래 없는 웰빙에 대한 관심고조로 정기건강검진, 건강보조식품, 스포츠센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함
 - 무공해 식품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고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전망임
 -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보건상품 및 사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00년에서 2015까지 약 두 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의 식품 시장동향

○ 수요동향

- 브라질 고급커피 경우 소비량이 매년 25%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비하면 브라질 고급커피시장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세계 고급커피 소비량이 평균 15%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브라질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고급커피 시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브라질 고급커피시장은 현재 시작단계에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며, 이탈리아의 경우 에스프레소 커피기계가 20만대에 이르는 반면, 브라질에는 1만 5천대 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인당 원두비량은 약 5킬로그램 정도로, 두 나라가 비슷함
- 커피를 매우 즐기는 브라질 사람들의 연간 커피원두소비량은 1600만 자루에 이르는데 고급 커피는 일반 커피에 비하여 약 04헤알(200원)밖에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중화돼 있지는 않음
- 브라질 질 좋은 원두 주요 생산지역은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의 고원지대, Espirito Santos 고산지대와 바이아(Bahia)의 고원지대 등이 꼽히며 브

- 라질은 고급 커피 생산국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유기농 커피도 인기가 높아 유럽, 미국,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음
- 일반커피의 경우도 전세계 커피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실정임, 브라질 커피농작지역은 시설이 낡아서 생산성이 낮으며 약 40% 가량의 시설이 개보수가 필요함
 - 국제커피협회에 따르면 전세계 커피 원두 수출물량은 8600만 자루에 이르는 데 이 중 현재 브라질은 2천 6백만 자루의 커피를 매년 수출하면서 31% 이상을 차지함
 - 현재 전세계적으로 1억1500만 자루의 커피원두가 연간 소비되고 있는데 2010년에는 1억4500만 자루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브라질은 향후 5년간 매년 7%씩 수요가 증가해 2010년 2100만 자루의 원두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커피소비량 추세)



- 김을 비롯한 해조류 제품은 주로 일본인 및 한인 전문 수입상을 중심으로 수입되어 브라질 시장 전역으로 유통되며, 간혹 식품점 또는 식당의 업주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 판로 및 유통망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통하는 것이 브라질 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임
- 브라질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중국산 김과의 가격 경쟁으로, 적절한 품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조건만 맞출 수 있으면, 나날이 증가하는 김 수요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시장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1-2년 사이 수입된 중국산 김은 가격면에서 한국산보다 대단히 저렴하여, 이런 이유로, 고품질 한국산 제품을 고집하던 수입업체들도 점차 중국산으로 교체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음
- 중국산 김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최소한 그들 가격과 동등하거나 조금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어야만 시장성이 있음

○ 생산동향

- 브라질이 2004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04년 총 185만 톤의 쇠고기를 수출한 브라질은 올 연말까지 작년보다 45만 톤이 늘어난 230만 톤을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브라질 농축산업협회(CAN)가 발표함
- 올해 예상되는 브라질산 쇠고기 수출량 230만 톤은 세계 제 2위 쇠고기 수출국인 호주를 약 100만 톤 이상 앞서는 양이나, 수익 면에 있어서는 32억~33억 달러에 그쳐 40억달러의 수익이 예상되는 호주에 이어 세계 2위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 2배에 가까운 수출량에도 불과하고 호주보다 수익률이 적은 원인은 수출용 쇠고기의 부위 때문으로, 호주의 경우 고부가가치를 가진 쇠고기 부위를 주로 해외로 수출하는 반면 브라질은 값싼 부위가 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호주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브라질은 아직까지 대일본 쇠고기 수출 허가를 얻어내지 못한 상황임
- 현재까지 쇠고기 주요 부위의 수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브라질 축산업체들은 올 상반기 이집트, 알제리, 불가리아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한 사실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브라질 농축산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약 6900만달러의 브라질산 쇠고기가 알제리로 수출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이 증가된 액수임
- 한편 브라질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러시아로, 지난 8월 말 현재 약 3억 6천 400만 달러가 수출되었고, 2위는 이집트로 1억9200만 달러, 3위는 1억4000만 달러를 수입한 네덜란드가 차지함
- 브라질은 거대한 농토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농업대국으로서 현 경작면적

은 전국토의 5.4%(4,600만ha)에 불과하나 농업은 GDP의 12%, 노동 총인구의 22%, 수출 총액의 36%를 점하는 주요 부분임

(단위: 백만톤)

구 분	2002	2003
커피	3,268	2,846
대두	41.9	31.7
면화	1.24	1.35
오렌지	112	116
사탕수수	342.8	350.3
코코아	206	210
옥수수	35.28	47.38
쌀	10.62	10.42

(* 자료원: 브라질 개발상공부 및 통계청)

- 전국토의 20%가 초원으로 풍부한 목축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대규모적인 축산 장려책도 실시중이며, 닭고기와 쇠고기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단위: 백만톤)

구 분	2002	2003
쇠고기	6.93	7.7
닭고기	7.3	8.1
우유(10억 리터)	21.6	22.5

- 중채무국인 브라질은 외채상환을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관리정책을 시행,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9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장개방 확대 및 Real Plan 추진에 따른 Real화 고평가로 94년 이후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됨
- 브라질 정부의 수출 강화 노력과 함께 2001년부터 경제침체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Real화의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무역수지가 다시 흑자로 전환됨
- 브라질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과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95.3월부터 관세 인상, 쿼타제 도입 등 수입규제조치를 취

- 하는 한편, 수출 지역 다변화, 세제혜택부여,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다양한 수출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물라정부가 출범한 후 강도 높은 수출산업육성 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고 국내경제 침체 지속으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로 2003년도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95년 이후 최대폭인 248억불을 기록하였음
 - 브라질 주요수출시장 (2003년말 기준)
 - 미국
 - 아르헨티나
 - 중국
 - 네덜란드
 - 독일
 - 주요 10대 수출품목 (2003년말 기준)
 - 대두
 - 철광석
 - 승용차
 - 대두가루
 - 원유
 - 셀류로스
 - 항공기
 - 자동차 엔진
 - 통신기기
 - 닭고기
 - 2003년 브라질의 수출은 환율인상 여파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확대 노력, 국제원자재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21.1% 증가한 731억불을 시현했음
 - 수입은 경기둔화현상 심화 및 이자율 인상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악화에 따라 전년 대비 2.2% 증가한 483억불에 그쳤음. 수출호조 및 수입부진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248억불 흑자를 시현했음
 - 2004년 5월말 브라질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한 340억불을 기록하고 수입은 19.1% 증가한 227억불을 기록했음

- 2004년 브라질의 수출은 국제원자재 수요 확대 및 브라질 정부의 수출촉진정책에 따라 전년보다 9.5% 증가한 800억불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와 환율 안정, 수출용 중간재 수요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55억불을 기록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

	2001		2002		2003		2004.1-5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8,223	5.7	60,362	3.7	73,084	21.1	33,979	25.25
수입	55,572	-0.4	47,216	-15.0	48,253	2.2	22,736	19.1
수지	2,651		13,143		24,831		11,243	

* 자료원: 브라질 중앙은행(2004.5)

(브라질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국 가	2001	2002	2003	2004. 1
미 국	15,596	16,798	17,241	2,563
중 국	2,032	2,617	5,313	641
독 일	2,673	2,665	3,925	604
네덜란드	3,082	3,389	3,428	485
아르헨티나	5,402	2,484	3,145	659
멕시코	1,965	2,449	3,100	571
일 본	2,180	2,246	2,622	405
프랑스	1,777	1,646	2,297	418
영 국	1,828	1,891	2,252	419
이태리	1,960	1,942	2,222	427
한 국	784	919	1,164	294

* 자료원: IMF